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 분석

- - 인접쌍 (adjacency pairs) 을 중심으로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강 지 원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 분석

- - 인접쌍 (adjacency pairs) 을 중심으로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 년 11 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강 지 원

인 준 서

강지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5종의 대화문을 대화분석적 관점에서 특히 인접쌍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과서가 인접쌍을 얼마나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과서에 나타난 인접쌍을 선호구조와 비선호구조로 분류하고 그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교과서 별 인접쌍의 분포를 비교하였고,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세부빈도로 나타나지 않았거나 아예 제시되지 않았던 인접쌍은 미국 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보충하여 제시하였다.

McLaughlin(1984)이 제시한 인접쌍의 종류 13가지 항목에 Levinson(1983)의 예시 중에서 '제의-수용/거절' 항목, '충고-수용/거절' 항목을 첨가하고, '기타' 항목을 추가한 총 16가지의 인접쌍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중 '칭찬-수용/거부', '사과-수용/거부', '요청-수락/거절', '비난-거부/인정', '주장-동의/반대', '자랑-인정/조롱', '제의-수용/거절', '충고-수용/거절'의 선호성에 근거하여 선호구조와 비선호구조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접쌍은 총 16개 중 '위협-대응', '모욕-반응', '도전-대응'을 제외한 13개의 인접쌍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중 '질문-대답', '요청-수락/거절', '기타', '제의-수용/거절'의 인접쌍에 약 77%의 분포도가 편중되어 나타났다.

둘째,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나타난 인접쌍을 선호성에 근거하여 분류한 결과, 선호구조는 약 80%, 비선호구조는 약 8%로

매우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어느 구조인지 분류할 수 없었던 경우도 약 12%에 달하고 있었다.

셋째, 5 종의 교과서 별로 인접쌍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각 교과서 별로 분포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교과서 별 분류에서도 인접쌍이 주로 '질문-대답', '제의-수용/거절', '기타'에 집중되어 있었다.

넷째, 인접쌍의 세부 분포에서 나타나지 않았거나, 대화문에서 아예 제시되지 않았던 인접쌍은 등장 인물이 고등학생인 미국 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보충 ·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서의 대화문을 제작할 때 학습자들이 보다 다양한 인접쌍을 비슷한 빈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제작하여야 할 것이며,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비선호구조는 분석결과의 8%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과서의 대화문을 통한 학습자의 비선호구조에 대한 연습 및 학습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교사는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재구성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를 해주거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활용하여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학습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2
1.3 연구의 구성	3
II. 이론적 배경	4
2.1. 2007년 개정 제 7 차 교육과정의 목표	4
2.2.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정의	4
2.3. 대화문의 효용성	7
2.4. 대화분석의 주요 개념	9
2.5. 선행연구	13
III. 분석의 실제	17
3.1. 분석 대상	17
3.2. 분석 기준	17
3.3. 분석 결과	20
IV. 결론	77
참 고 문 헌	80
ABSTRACT	83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와 상호의존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경쟁과 함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 수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영어는 명실공히 국제적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영어는 각기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1997)은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으며, 개정된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2007)은 의사소통 기능 관련 교육 내용의 구체화 및 강화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그 목표를 더더욱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영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영어에의 노출 또한 주로 교실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영어교과서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Long(1985)의 상호작용 가설(Interaction Hypothesis)에 따르면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적 입력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들을 습득하여 이를 실제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협상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상호작용이 대화상대자의 의도된 의미를 서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서로의 발화를 상호 수정해 가는 의미협상 과정을 통해 언어습득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대화문은 대화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본보기로 제시해주고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면에서 교과서 내의 대화문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 있다.

따라서 2007년 개정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대화문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되어 2009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교과서 5종을 선정하여 교과서의 대화문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5종 교과서의 대화문을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적 관점 중 특히, 인접쌍(adjacency pairs)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과서가 인접쌍을 얼마나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5종 교과서에 나타난 인접쌍을 선호구조와 비선호구조

로 분류하고 그 빈도를 살펴본다.

셋째, 각 교과서 별로 다양한 인접쌍을 대화문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교과서 별 인접쌍의 분포를 비교한다.

넷째, 분석 결과 각 인접쌍에서 세부 빈도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또는 교과서의 대화문 내에서 아예 다루어지지 않은 인접쌍은 미국드라마에서 보충하여 제시한다.

1.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2007 개정 제7차 교육과정, 의사소통능력의 정의, 대화문의 효용성 등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이 되는 대화분석적 개념 중 인접쌍과 선호구조/비선호구조의 개념들도 살펴보며, 본 연구와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제시한다.

제3장 분석의 실제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및 기준을 제시한 다음, 실제로 현행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5종을 선정하여 대화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나타낸다.

제4장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2007년 개정 제7차 교육과정의 중점적인 교육목표와 의사소통능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문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 볼 것이다. 또한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의 관점 중 본 논문의 분석 기준이 되는 인접쌍과 선호조직에 대한 이론도 살펴보고자 한다.

2.1. 2007년 개정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

2007년 개정된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구현', '학습 내용의 연계성 강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중점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과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개정전의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기능 및 문화 관련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여 강화하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관련 내용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2.2.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정의

2007년 개정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는 한마디로 의사소통 능력 신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homsky(1965)는 '*Aspect of Theory of Syntax*'에서 인간의 언어 지식을 언어 능력(competence)과 언어 수행(performance)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언어능력이 동질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사회에서 이상적인 화자(speaker)가 언어의 규칙과 구조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개념 정의하였으며, 언어 수행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화자가 실제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Chomsky의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은 여러 학자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중 Hymes(1972)는 Chomsky의 정의가 언어의 사회적, 기능적 규칙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언어학적 측면의 지식보다 사회학적 측면의 지식인 의사소통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법 규칙 이전에 이를 유용하게 해주는 언어 사용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언어의 문법성과 수용 가능성만으로는 언어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다.

Hymes는 의사소통 능력이란 개념을 처음 사용한 학자로서 그는 인간이 특정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인간 상호간에 의미를 타협하게 해주는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언어의 문법성(grammaticality),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 적합성(appropriateness), 실제 실행성(probability)을 의사소통 능력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들고 있다.

가) 어떤 표현이 문법에 맞는가를 판단하는 능력 - 언어의

문법성

나) 어떤 표현이 실제로 생성이나 이해하는데 사용 가능한가를 아는 능력 - 언어의 수용 가능성

다) 어떤 표현이 그 표현이 쓰이는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가를 판별하는 능력 - 언어의 적합성

라) 어떤 표현이 표출되었을 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변별하는 능력 - 언어의 실제 실행성

이처럼 Hymes의 의사소통능력 개념은 화자와 청자의 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구조적, 상황적 적절성에 대한 사용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 Chomsky의 문법적 능력보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Canale과 Swain(1980)은 Hymes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를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담화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로 나누었다. 문법적 능력은 Chomsky의 언어 능력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문법 규칙, 맞춤법, 어휘화 같은 언어학적 능력이고, 담화 능력은 개별적인 표현을 전체 담화와 문맥의 의미와 연결하는 능력이고, 사회언어적 능력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대화 참여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언어 표현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전략적 능력은 대화를 수정, 보완, 유지하기 위해 대화자가 언어적 · 비언어적으로 대화를 유지시켜 나가는 능력이다.

1990년대에 Bachman(1990)은 의사소통 능력을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구체적인 언어 정보에 관한 지식을 나타내는 언어능력(language competence),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맥락에서 언어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신능력인 책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언어 사용을 하나의 물리적 현상으로 실행하는 데에 관여하는 신경학적, 심리적인 과정인 심리-생리적 기제(psycho physiological mechanisms)로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Canale과 Swain의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의사소통 능력이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 형태 등에 관한 언어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적절성에 대한 지식과 문장 이상의 단계에서 요구하는 담화 구성능력,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대화문의 효용성

대화문은 영어를 포함한 많은 교육 분야에서 예시로 사용되는 하나의 교육적 자료로서, 특히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한 교수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교육에서 대화문은 상황에 적합한 표현 방법 학습에 적합한 자료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대화문을 통해 간단한 감정표현, 인사 방법, 지시 방법 등의 짧고 간단하고 쉬운 표현을 배워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많은 상황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 질문과 대답에 대한 형식을

배움으로써 언어적 표현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매체이다.

Dobson(1975)은 대화문의 효용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대화문은 실제적인 사회적 맥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습자는 실용적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둘째, 대화문은 여러 가지 문법 형태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대화문은 그 형식이 간결하며, 실제적 상황 내에서 낱말이나 문장들이 그들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를 외우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암기한 표현은 활용가치가 높다. 넷째, 대화문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는 두 화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대화문은 언어의 문화적인 면을 갖고 있다. 다섯째, 학습자는 대화문을 통해 역할을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어 학습에 자신감을 주는 심리적 효용을 포함한다.

Broughton(1980)도 대화문은 그 자체가 의사소통의 본질인 사람들의 언어 상호작용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음운, 어휘, 문법적 내용의 학습과 언어의 의사소통 개발을 위한 언어학습에도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대화문이 학습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화문이 적합한 교수자료로써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Dobson(1975)에 따르면 좋은 대화문은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화문의 길이 면에서 이상적인 대화는 화자 A와 화자 B가 한번씩 주고 받는 것, 즉 교환이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좋다. 둘째, 좋은 대화는 화자간의 말이 균형이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한 화자가 이야기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상대방은 'Yes'나 'No' 같은 간단한 말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대화의 종결행(Finish line)이

적절해야 한다. 대화는 대화가 실제로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강한 종결행이 형성되어야 한다. 넷째, 자연스러운 대화를 반영해 주어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축약형을 일부러 배제한다거나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혼용함으로써 조작적인 대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대화문에 인위적인 문장이 포함될 경우 학습자가 부자연스러운 언어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좋은 대화문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고 한다. Dobson(1975)은 위의 좋은 대화문의 조건에서 종결행이 적절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상황의 종료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종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구조의 완결은 인접쌍(adjacency pairs)을 대화문에서 적절히 사용해 끝내줌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인접쌍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지식은 다음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2.4. 대화분석의 주요 개념

2007년 제7차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의 구성 요소 중의 중요한 한 가지의 능력은 대화의 규칙을 알고 그 규칙에 따라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분석은 대화참여자가 어떻게 말을 주고 받는지에 관한 말차례 체계의 문제와, 대화의 순차적 구조의 문제, 인접대귀구조, 선호조직, 수정현상, 주제의 전개 등 대화상에서 대화참여자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사회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것은 외국어 학습자가 목표언어의 대화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규칙에 의해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화분석의 주요 개념 중 본 논문의 분석 기준이 되는 인접대귀구조(인접쌍)와 선호구조/비선호구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 인접쌍 (Adjacency Pairs)

McLaughlin(1984)에 의하면, 인접쌍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화행의 확장 가능한 쌍으로 첫 번째 발화가 두 번째 발화의 행동을 위한 “슬롯(slot)”을 정하고, 두 번째 발화는 첫 번째 발화에서 표현되었던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한다. (Adjacency pairs are expandable pairs of adjacently placed speech acts in which the first establishes a “slot” for the performance of the second, and the second “satisfies” the demand expressed in the first.)

Schegloff(2007)에 의하면, 최소의 기본적이고 확장되지 않은 형식의 인접쌍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 두 번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나) 각각의 차례는 다른 화자에 의해서 일어난다.

다) 하나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나타나는 것처럼 근접하게 위치한다.

라) 두 번의 차례는 비교적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이는 ‘첫 번째 쌍 부분(first pair parts - 이하 FPPs라 함)’와 ‘두 번째 쌍 부분(second pair parts - 이하 SPPs라 함)’으로 나누어진다. FPPs는 질문, 요청, 제의, 초대 같은 교환을 시작하는 발화의 종류이며, SPPs는 대답, 허락, 거절, 수용, 동의/비동

의 같은 이전 차례의 행동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는 발화의 종류이다.

마) 인접쌍의 요소는 유형의 종류와 연관되어있다. 즉, 모든 SPP가 아무 유형의 FPP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접쌍은 쌍의 유형(pair types)로 구성되며, 그 유형은 인사-인사, 질문-대답, 제의-수락/거절 등과 같은 교환이다. 인접쌍을 만들기 위해서 FPP와 SPP는 같은 쌍의 유형에서 와야 한다.

McLaughlin(1984)이 제시한 인접쌍의 종류는 질문-대답, 호출-대답, 인사-인사, 칭찬-수용/거부, 끝맺음-끝맺음, 사과-수용/거부, 요청-수락/거절, 위협-대응, 모욕-반응, 도전-대응, 비난-거부/인정, 주장-동의/반대, 자랑-인정/조롱 등이 있으며, Levinson(1983)은 *Pragmatics*에서 질문-대답, 충고-수용/거절, 요청-수용/거절, 제의/초대-수용/거절, 평가-동의/반대, 비난-부인/인정, 인사-인사, 호출-대답 등을 예시로서 제시하였다.

2) 선호구조/비선호구조

선호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인접쌍에 기초한 개념으로 인접쌍에서 두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대답을 선호 응대(preferred)나 비선호 응대(dispreferred)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에서 선호 응대는 주로 긍정적 답변으로 나타나며, 비선호 응대는 부정적인 답변으로 나타난다. 부정적 답변은 화자의 체면유지를 위해 변명이나 부연설명이 추가되며, 이 때문에 선호응대에 비해 구조적인

면에서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a) A: Why don't you come up and see me some times?

B: I would like to

(b) A: Uh if you'd care to come and visit a little while
this morning I'll give you a cup of coffee

B: hehh Well that's awfully sweet of you,

I don't think I can make it this morning.

.hh uhm I'm running an ad in the paper and-and
uh I have to stay near the phone.

Atkinson & Drew(1979)는 A의 초대에 대한 B의 응대의 구조에 (a)와 (b)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a)는 초대에 대한 수용으로 바로 연결되며, 이 수용은 지연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어 단순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b)는 초대에 대한 거절의 말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비선호적 응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 B의 대답은 지체가 되고 'Well'이라는 수식어가 앞서며 감사의 말에 이어 거절의 뜻을 전하고 또한 거절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긍정의 답변 때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비선호 응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tkinson & Drew, 1979).

a) 지연(delay): 말하기 전의 휴지(pause), 서언(preface)의 사용, 교정시발어(repair initiator)를 이용한 여러 순서 건너뛰기

- b) 서언(preface): Uh나 Well 등의 사용, 의견이 다름을 말하기 전에 형식적인 동의 표시, 제안·초대·제시·충고 등의 경우에 감사의 표시, 요청이나 초대 등의 경우에 사과 표시, 'I don' t know for sure, but...' 같은 유연화(qualifier)의 사용, 주저(hesitation)
- c) 변명(account): 비선호 응대에 대한 해명, 설명

이처럼 선호조직과 비선호조직은 구조상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5. 선행연구

본 연구는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려 한다.

김수경(2004)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 비교·분석>에서 제 6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된 '고등 영어'(고등학교 1학년 대상) 교과서 중에서 각각 3종을 선정하여 각 교과서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기능 범주와 화제, 참여자의 관계, 대화 양식, 인접쌍, 대화문의 길이를 분석 기준으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중 인접쌍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 7차 교과서는 제 6차 교과서에 비해 인접쌍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고 또한 더욱더 편중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 6차와 제 7차 교과서는 모두 '질문-대답'의 비율이 가

장 높고 '칭찬-수용/거부'와 '요청-수락/거절'은 제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보다 제 7차 교과서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호출-대답', '인사-인사', '끝맺음-끝맺음'은 제 6차 교과서에는 다루어진 반면, 제 7차 교과서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자랑-인정'항목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실생활에서의 대화는 주로 인사로 시작하면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 후에 대화를 끝맺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과서 내의 대화문의 길이는 좀 더 길고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또한 다양한 인접쌍이나 대화 양식이 제시된 대화문도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아름(2007)은 <중1 영어 교과서 대화문 분석>에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10종을 선정하여 각 말하기 활동에 제시된 대화 예시문을 9가지의 기준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교과서가 말하기 교육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의 분석 중 인접쌍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질문-대답'의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며, '인사-인사'와 '감사-감사'와 같은 인접쌍 유형은 대화문 수에 비해 적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인사와 감사는 대인관계에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상호대귀를 이루어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 두 가지가 대화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접쌍인 동시에 둘 이상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접쌍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상호대귀를 이루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양숙(2007)은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 분석>에서 고등학교 영어 회화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회언어학적 변인들이 대화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현행 영어 회화 교과서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대화 자료에 나타난 인접대귀 구조를 조사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교과서가 '질문 - 대답'의 인접쌍 유형에 많이 편중되어 나타났고, '도전 - 대응'의 구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재의 대화 자료는 다양한 인접대귀 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명희(2008)는 <고등학교 영어 회화 교과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의 대화문 분석>에서 고등학교 영어 회화 교과서가 제 7차 교육과정의 목표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평가로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의 연구 결과 중 인접쌍과 관련된 결과는, 4종의 고등학교 영어 회화 교과서와 5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에서 모두 '질문-대답'과 '제안-수용/거절'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지만, '호출-대답', '주장-동의/반대', '충고-수용/거절', '비난-거부/인정'은 4종의 고등학교 영어 회화 교과서에서는 제시되었으나, 5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에서는 한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주장-동의/반대', '충고-수용/거절'의 인접쌍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만큼, 5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러한 인접쌍들이 출제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 언급된 선행연구들은 인접쌍을 사회언어학적 변인 중 한 요소로서 다루어 주어진 대화문을 인접쌍별로 분류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류뿐만 아니라, 특히 분포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세부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질문-대답'과 '기타'의 인접쌍을 세부 분류하여 그 안에서의 분포도 또한 살펴볼 것이며, 분석된 인접쌍의 분포도에 기반하여 선호구조와 비선호구조의

분포도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Ⅲ. 분석의 실제

3.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는 2007년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
에 따라 제작되어 2009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
서 *High School English* 17종 중 임의로 5종을 선정하여 대화문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별 분석 대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저 자	출판사	분석부분	단원수	대화문수
A	이창수 외 6인	해피하우스	Speaking	12	24
B	김성곤 외 8인	(주)두산	Listen and Talk	12	24
C	이찬승 외 5인	능률교육	Listen In & Speak Out	11	19
D	김덕기 외 6인	천재교육	Listen and Talk, Review	10	22
E	권오량 외 6인	(주)금성출판 사	Let's Talk, Let's Communicate	11	16

3.2. 분석 기준

본 연구는 인접쌍과 그에 따른 선호구조/비선호구조를 기준으로 대화문을 분석하였다.

1) 인접쌍 (adjacency pairs)

본 연구에서는 McLaughlin(1984)이 제시한 인접쌍의 종류 13가지 항목에 Levinson(1983)의 예시 중에서 '제의-수용/거절 (suggest-accept/reject)' 항목, '충고-수용/거절 (advice-accept/reject)' 항목을 첨가하고,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16가지의 큰 틀을 기준으로 대화문을 분석하였다.

인접쌍	
1	질문 - 대답 (question - answer)
2	호출 - 대답 (summons - answer)
3	인사 - 인사 (greeting - greeting)
4	칭찬 - 수용/거부 (compliment - accept/reject)
5	끝맺음 - 끝맺음 (closing - closing)
6	사과 - 수용/거부 (apology - accept/reject)
7	요청 - 수락/거절 (request - grant/deny)
8	위협 - 대응 (threat - response)
9	모욕 - 반응 (insult - response)
10	도전 - 대응 (challenge - response)

11	비난 - 거부/인정 (accuse - deny/confess)
12	주장 - 동의/반대 (assertion - assent/dissent)
13	자랑 - 인정/조롱 (boast - appreciate/deride)
14	제의 - 수용/거절 (suggest - accept/reject)
15	충고 - 수용/거절 (advice - accept/reject)
16	기타

2) 선호구조/비선호구조

선호구조는 인접쌍 구조에 기초한 개념으로 인접쌍에서 두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대답을 선호응대(preferred)나 비선호응대(dispreferred)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화에서 인접대귀를 이루는 구조에서 두 번째 부분이 구조적으로 간단한 모양을 선호 응대라 하고, 이에 반해 두 번째 부분이 구조적으로 복잡한 양상, 즉 응대가 지체된다거나, 응대에 수식적인 다른 요소들이 동반된다거나 설명이 추가된다거나 하는 양상을 갖게 되는 응대를 비선호 응대라고 한다.

비선호 응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i) 응대 시작 시에 지체 또는 머뭇거림, (ii) 'Uh'나 'Well'과 같은 서두 수식어 (그리고 감사의 표시나 망설임의 표현), (iii) 비선호 응대에 대한 해명/설명, (iv) 거절, 반대 등의 비선호적 표현(Levinson 1983). 이처럼 선호조직의 개념은 선호응대와 비선호 응대간의 구조상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선호조직의 개념은 대화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기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쌍을 분류한 후 그 선호성에 근거해 선호 구조, 비선호구조의 분포도 또한 살펴볼 것이다. 그 대상이 되는 인접쌍은 다음과 같다.

	인접쌍
1	칭찬 - 수용/거부 (compliment - accept/reject)
2	사과 - 수용/거부 (apology - accept/reject)
3	요청 - 수락/거절 (request - grant/deny)
4	비난 - 거부/인정 (accuse - deny/confess)
5	주장 - 동의/반대 (assertion - assent/dissent)
6	자랑 - 인정/조롱 (boast - appreciate/deride)
7	제의 - 수용/거절 (suggest - accept/reject)
8	충고 - 수용/거절 (advice - accept/reject)

3.3. 분석 결과

인접쌍과 선호구조의 분포도에 대한 분석 내용은 표로 나타냈으며, 빈도의 백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1) 인접쌍

인접쌍의 총 16개 항목으로 분류한 후 문장의 형식이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대화문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접쌍	빈도	분포도(%)
1	질문 - 대답	107	25.85
2	호출 - 대답	1	0.25
3	인사 - 인사	14	3.38
4	칭찬 - 수용/거부	5	1.21
5	끝맺음 - 끝맺음	3	0.72
6	사과 - 수용/거부	3	0.72
7	요청 - 수락/거절	83	20.05
8	위협 - 대응	0	0
9	모욕 - 반응	0	0
10	도전 - 대응	0	0
11	비난 - 거부/인정	6	1.45
12	주장 - 동의/반대	53	12.8
13	자랑 - 인정/조롱	3	0.72
14	제의 - 수용/거절	62	14.98
15	충고 - 수용/거절	7	1.69
16	기타	67	16.18
	총합계	414	100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교과서 5종에서 제시된 인접쌍 분포를 살펴보면, '질문-대답' (25.85%), '요청-수락/거절' (20.05%), '기타' (16.18%), '제의-수용/거절' (14.98%), '주장-동의/반대'

(12.8%), '인사-인사' (3.38%), '충고-수용/거절' (1.69%), '비난-거부/인정' (1.45%), '칭찬-수용/거부' (1.21%), '끝맺음-끝맺음' (0.72%), '사과-수용/거부' (0.72%), '자랑-인정/조롱' (0.72%), '호출-대답' (0.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협-대응', '모욕-반응', '도전-대응'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접쌍들을 분포도 순으로 각각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특히 분포도가 높지만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은 '질문-대답'과 '기타'의 인접쌍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하며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분석대상이 되는 교과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여, 비슷한 연령층인 미국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미국 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인접쌍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질문 - 대답

인접쌍	빈도	세부 분류	빈도	분포도(%)
질문 - 대답	107	사실 확인	24	22.43
		의견/의향	51	47.66
		경험	4	3.74
		계획	9	8.41
		이유	12	11.21

	정도	2	1.87
	선택	1	0.94
	소망	4	3.74
	총합계	107	100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는 총 107개의 '질문-대답'의 인접쌍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였을 때, 총 8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는 의견/의향(47.66%), 사실확인(22.43%), 이유(11.21%), 계획(8.41%), 경험(3.74%), 소망(3.74%), 선택(0.94%)의 나타나고 있었다.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인접쌍들을 분포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의견/의향

<예1: A 교과서, p. 146>

A: What are you reading, John?

B: It's a novel by Mark Twa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A: Is it any good?

B: Yes, I highly recommend it.

<예2: C 교과서, p. 197>

A: What do you think transportation will be like in Korea in the future?

B: I think we will be able to use flying cars. How about you?

'의견 또는 의향'을 나타내는 '질문-대답'의 인접쌍의 하위 범주는 발화자가 상대방의 의견이나 의사를 알기 위한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청취자의 의견이 대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 1>은 B가 읽고 있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란 책에 대한 B의 의견을 A가 묻자, B는 그 책을 매우 추천한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예 2>는 A가 미래의 한국의 교통수단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고, B는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예 1>과 <예 2>에서 보듯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에는 질문의 형태 - Yes-No Questions와 Wh-Questions - 에 구애 받지 않고 질문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실 확인

<예 3: A 교과서, p. 12>

A: Do you still exchange email message with your American e-pals?

B: Yes, I do.

<예 4: D 교과서, p. 58>

B: Oh, no! Did you save your file?

A: No, I hadn't saved it yet. I don't know what to do.

'사실 확인'의 범주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나타낸다. 위에 제시된 두 가지의 예를 살펴보면 '사실확인' 범주로 분류된 '질문-대답'의 인접쌍은 먼저 발화한 발화자가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으로서 그 다음 발화자가 대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3>에서 A는 B가 미국인 이메일 친구와 여전히 이메일을 주고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B는 아직도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다는 대답을 함으로써 사실 확인을 해주고 있다. 또한 <예 4>에서도 B는 A가 파일을 저장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A는 파일 저장을 하지 않았다며 그 질문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유

<예 5: D 교과서, p. 24>

A: Why do you want to join it?

B: Because I want to be an actor like Tom Cruise. He is my hero.

<예 6: C 교과서, p. 195>

B: Well, for example, I don't understand it when Koreans use two hands when giving things to their elders. Is there any special reason for it?

A: I think it's because Koreans want to show respect to their elders.

‘이유’의 범주는 발화자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견 등에 대한 까닭이나 근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나타내고 있다. 12개의 인접쌍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대답의 경우, 질문은 주로 <예 5>처럼 이유를 묻는 의문사인 ‘why’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why-because 패턴이 이유를 묻고 대답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예 6>에서는 한국의 관습에 대해 대화하는 도중, 어른들께 두 손으로 물건을 드리는 행위에 대한 이유를 ‘why’가 아닌 ‘Is there any special reason for it?’이라는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교과서에서 전형적인 문형 외에도 사용빈도수가 높은 표현을 더 많이 다루어준다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표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 계획

<예 7: D 교과서, p. 171>

A: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B: Yeah, I’m planning to work out at a fitness center.

<예 8: E 교과서, p. 135>

A: Oh, you’re shopping online. What are you going to buy?

B: I’m going to buy the DVD Shine. Have you heard of that movie?

‘계획’의 범주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대답을 나타낸다. <예 7>은 다가올 겨울 방학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A의

질문에 B는 운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으며, <예 8>은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는 B에게 A에게 무엇을 살 것인지를 질문하고 B는 DVD를 살 것 이라고 계획을 이야기 하고 있다. 분석된 대화문에서 계획에 대한 '질문-대답'을 제시할 경우, 주로 사용되는 표현은 <예 8>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래시제이었다.

(마) 경험

<예 9: B 교과서, p. 101>
A: Have you seen Harry Potter?
B: Yes, I have.

'경험'의 범주는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9>는 해리포터 영화 관람의 경험 여부를 A가 묻고 이에 대한 B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다.

(바) 소망

<예 10: C 교과서, p. 77>
A: Do you have a special wish?
B: Well, I wish I were good at sports.

'소망'의 범주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대답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질문-대답을 나타낸다. <예 10>은 A

가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B는 스포츠를 잘하면 좋겠다는 자신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 정도

<예 11: A 교과서, p. 50>

A: Why is Ali standing so close to Tina?

B: Ali is from Morocco. It's a custom there to stand close to each other.

A: Really? How close do they stand?

B: Very close. It is a sign of friendship!

'정도'의 범주는 주로 'how + 형용사/부사'의 형태가 사용됨으로써 어떠한 현상이나 상태 등에 대한 정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나타낸다. <예 11>은 사람 옆에 매우 가까이 서는 모로코의 관습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까이 서있는지에 대한 질문-대답이 나타나고 있다.

(아) 선택

<예 12: A 교과서, p. 88>

A: Hey, I didn't know you collected foreign currencies. There are so many!

B: Sure. It's my hobby. You know what? I have more than 2,000

coins and bills!

A: Really? That's cool! Which ones are your favorites?

B: I love the bill from the Netherlands the best. Look at how colorful it is!

'선택'의 범주는 여러 가지의 옵션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질문-대답이다. <예 12>에서 외국 통화를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B에게 A는 지금까지 모은 통화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으며, B는 네덜란드의 지폐를 가장 좋아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2) 요청 - 수락/거절

인접쌍	빈도	선호구조/비선호구조	빈도	분포도(%)
요청 - 수락/거절	83	선호구조	79	95.18
		비선호구조	0	0
		영인접쌍	4	4.82
		총합계	83	100

대화문의 인접쌍의 분포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요청-수락/거절'의 세부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선호구조에 해당하는 '요청-수락'은 95.1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선호구조인 '요청-거절'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요청에 대한 인접쌍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4.82%가 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 비선호 구조 '요청-거절'은 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인용하여 제시할 것이다.

(가) 선호구조 (요청-수락)

<예 13: A 교과서, p. 146>

A: Would you mind if I borrowed the book when you're done?

B: Sure. No problem.

<예 14: B 교과서, p. 47>

A: Norah's Hair Care. May I help you?

B: Yes. I need a haircut.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for today.

A: What time would you like to come in?

<예 15: D 교과서, p. 29>

A: You look worried. What's the matter?

B: Nothing serious. But I can't focus on my studies.

A: Really? Then why don't you do some stretching?

B: That's a pretty good idea. I'll do that.

<예 13>에서 B가 자신이 읽고 있던 책이 재미있다고 추천하자 A가 그 책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그 요청에 대해 B는 흔쾌히 수락하고 있다. <예 14>에서 B가 예약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간접요청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A는 질문을 하면서 자연

스럽게 수락을 하고 있다. <예 15>에서 A가 B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를 물어보자, B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충고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는 스트레칭을 해보라는 충고를 하며 그 요청에 대해 수락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Then why don’ t you do some stretching?” 이 문장은 요청에 대한 수락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제의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 문장이 동시에 여러 개의 인접쌍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 비선호구조 (요청-거절)

분석대상인 5종의 교과서에서는 ‘요청-거절’에 대한 인접쌍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그 예를 찾아 제시하려 한다.

<예 16: One Tree Hill, Season 2 – Episode 4>

DAN: I want you to fire Nathan. Name over the front door still says Dan Scott Motors?

KEITH: As long as I’m running things, I’m gonna make hiring decisions as I see fit. You know, word is you actually got a heart in your chest Dan; why don’t you try thinking of Nathan?

DAN: You know Keith, if Nathan can support a wife, he’ll never realize what a colossal mistake this marriage is.

KEITH: He's emancipated Dan! That's his mistake to make and if you want him fired, then you're gonna have to look him in the eye and do it yourself when you come back to work. Until then he stays.

<예 17: One Tree Hill, Season 2 – Episode 4>

PEYTON: OK, all I'm saying is that a lotta kids would support live music if they had a night of their own. Now you manage more than one band. OK, so if you would just work with me on this, I know we could get a club owner to agree to try it out.

MANAGER: Look. My band doesn't play to kids. We play to shot and beer crowds, not high school proms.

PEYTON: OK but what I'm saying is that an all-ages club could work in this town.

MANAGER: Sorry, no dice. I'm just not interested.

<예 16>의 주어진 상황은 심장마비 후유증으로 요양중인 Dan을 대신하여 Keith는 Dan의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해주는 중, Keith가 Dan의 아들인 Nathan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것을 Dan이 알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Dan은 고등학생인 Nathan이 부모와 상의 없이 결혼 후 독립을 해버리자, 우선은 돈이 부족해야 Nathan이 결혼에 대한 실수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Keith에게 Nathan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Keith는 이에 대해 해고를 할거면 Dan이 복직을 했을 때 직접 하라며 거절을 하고 있다.

<예 16>은 요청에 대해 바로 거절을 하기 보다는 왜 거절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변명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는 비선호 구조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 17>은 고등학생인 Peyton이 10대들을 위한 클럽에서 공연할 밴드들을 섭외하기 위해 한 매니저를 접촉한 상황이다. 매니저는 자신의 밴드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성인들을 위한 클럽에서 공연한다면 밴드 섭외에 대한 요청을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명확하게 거절하고 있다.

(다) 영인접쌍

<예 18: E 교과서, p. 45>

A: Jacob, are you free on May 1? I'm planning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Emily. Can you come?

B: Sorry, I can't. I'm planning to go to the Phoenix Center.

A: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B: I'm going to paint elderly people's home.

A: Then join us later if you can.

<예 18>은 요청에 대한 인접쌍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A가 B에게 생일파티에 대한 초대를 하자 B가 거절을 하며 왜 초대에 응할 수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는 나중에라도 파티에 참여를 하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 요청에 대한 인접쌍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대화가 종결되고 있다.

(3) 기타

인접쌍	빈도	세부 분류	빈도	분포도(%)
기타	67	소망 - 반응	15	22.39
		계획 - 반응	3	4.48
		격려 - 감사	5	7.45
		위로 - 수용	1	1.49
		변명 - 수용	2	2.99
		감사 - 응답	6	8.96
		약속 - 반응	1	1.49
		확인 - 반복/반응	9	13.43
		걱정 - 위로	2	2.99
		후회 - 반응	3	4.48
		기대 - 반응	2	2.99
		추측 - 반응	1	1.49
		감탄/놀라움 - 반응	9	13.43
		정보제공 - 반응	8	11.94
		총합계	67	100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는 대화문의 인접쌍 중 '기타'에 해당하는 총 67개의 인접쌍은 1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소망-반응' (22.39%), '확인-반복/반응' (13.43%), '감탄/놀라움-반응'

(13.43%), '정보제공-반응' (11.94%), '감사-응답' (8.96%), '격려-감사' (7.45%), '계획-반응' (4.48%), '후회-반응' (4.48%), '변명-수용' (2.99%), '걱정-위로' (2.99%), '기대-반응' (2.99%), '위로-수용' (1.49%), '약속-반응' (1.49%), '추측-반응' (1.4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소망 - 반응

<예 19: A 교과서, p. 68>

A: How's it going with your running schedule?

B: It's going well. Within 6 months, I want to be able to run 10km in an hour.

A: Really? What for?

B: I'm planning to complete the half marathon race.

A: Sounds fantastic!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예 20: E 교과서, p. 64>

B: I'm your fairy godmother, Cinderella. Dry those tears and go to the ball.

A: I'd love to. But I can't go there looking like this. I wish I had a beautiful dress for the party.

B: It is easy to change your appearance. Change, change, abracadabra, zap!

<예 21: E 교과서, p. 9>

A: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B: My dream is to be an explorer like Robert Peary.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exploring the Arctic.

A: Great. I hope your dream comes true.

'소망 - 반응'의 범주는 발화자가 자신의 소망이나 바람 등을 나타내는 발화를 하고 청취자가 이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인접쌍을 의미한다. <예 19>에서 A는 6개월 내에 한 시간에 10km를 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으며 B는 이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예 20>에서는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알맞은 옷을 갖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했으며, 이에 대해 요정은 외모(옷)을 바꿔 주는 것은 쉽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망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예도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예 21>에서 B의 Robert Peary 같은 탐험가가 되는 꿈에 대해서 A는 꿈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발화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응 없이 대화가 종료되고 있다.

(나) 확인 - 반복/반응

<예 22: C 교과서, p. 137>

A: Who do you think is the right person for our shampoo ad?

B: Well, I like the tall girl.

A: You mean the girl with straight hair?

B: Right. She'll make a perfect model.

A: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Let's choose her.

<예 23: E 교과서, p. 173>

A: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invention of all time?

B: I think it's the ballpoint pen. I can't imagine how people lived without it. We owe a great deal to Ladislo Biro.

A: To whom? Can you say that again?

B: Ladislo Biro. He invented the ballpoint pen in 1938.

'확인-반복/반응' 범주에 나타나는 인접쌍들은 대화에서 앞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 발화자가 확인을 위한 발화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청취자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거나 또는 그 확인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예 22>에서 삼푸 광고 모델 선정을 위한 대화에서 B가 모델 선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화하자 A가 B의 의견을 확인하는 말을 하고 이에 대해 다시 B가 확인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23>에서 볼펜을 발명한 Ladislo Biro에 대해 B가 이야기하자, A가 이해하지 못해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해 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B는 이름을 반복해 주고 있다.

(다) 감탄/놀라움 - 반응

<예 24: C 교과서, p. 35>

A: You know what? The Korean soccer team won their game against Italy.

B: Really? That's great! What was the score?

A: It was 3 to 1.

<예 25: E 교과서, p 135>

A: Any interesting stories in the paper?

B: There's an article about an old lady. She is eighty years old, yet she ran an entire marathon.

A: That's amazing. She is really incredible.

'감탄/놀라움-반응' 범주는 어떠한 일, 사건, 상황에 대해 감탄 또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발화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인접쌍이다. <예 24>에서 A는 한국팀이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이긴 것에 대해 감탄을 나타내고 있으며, B는 그에 대해 멋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탄이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발화에 항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 25>은 신문 기사에 나온 마라톤을 완주한 80살의 할머니에 대해 A가 감탄하는 발화를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의 인접쌍 없이 대화가 종결되고 있다.

(라) 정보제공 - 반응

<예 26: A 교과서, p. 106>

A: I've heard that the Arctic ice is melting.

B: That's because of global warming, which is caused by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정보제공-반응' 범주는 발화자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 후, 청취자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예 26>에서 A는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B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 현상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마) 감사 - 응답

<예 27: B 교과서, p. 67>

A: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it will be warm and humid.

B: Then make sure you take light clothes.

A: I will. Thank you for your advice.

B: Sure.

<예 28: C 교과서, p. 157>

A: Excuse me. How can I get to Jongmyo?

B: Let me see. We're now at Myeongdong Station. Take subway line number 4 and transfer to line number 3 at Chungmuro Station.

A: Oh, it's one stop from here.

B: Right. Then go for two stops from Chungmuro Station and get off at Jongno 3-ga Station.

A: I see. Thank you.

'감사-응답' 범주는 발화자의 감사의 표현에 청취자가 반응을 보이는 경우로, <예 27>에서 싱가포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A에게 B가 가벼운 옷을 챙기라는 충고를 하자, A는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B는 이에 대해 'Sure.'라고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예 28>은 길을 안내해준 B에게 A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B의 반응 없이 대화가 종결되고 있다.

(바) 격려 - 감사

<예 29: D 교과서, p. 42>

A: Why don't you set an alarm clock or ask your mom for help?

B: I did, but it's really hard.

A: Don't be depressed. There must be a way to help you.

B: I hope so. Thanks, Olivia.

<예 30: A 교과서, p. 166>

A: Look over there. People are raising funds for the flood victims.

B: Why don't we donate some money?

A: I'd like to, but my money won't be enough to help them much.

B: That's okay. I'm sure that every coin helps.

'격려-감사' 범주에서 발화자는 상대방을 격려하는 표현을 하고 그에 대해 청취자가 감사를 나타낸다. <예 29>에서 B가 매일 늦잠을 자게 되어서 학교에 늦는다는 고민을 털어놓자, A는 충고를 제공하며 우울해 하지 말라는 격려를 해주고 있고, 이에 대해 B는 고마워하고 있다. <예 30>은 A가 홍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적은 액수의 돈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B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며 A가 성금을 내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러나 <예 30>은 격려에 대한 감사의 인접쌍이 없는 상태로 대화가 끝나고 있다.

(사) 계획 - 반응

<예 31: B 교과서, p. 13>

A: I'm interested in volunteering, so I'm planning to volunteer at a nursing home.

B: That's really nice!

<예 31>은 관심사를 묻는 질문에 A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양로원에서 자원 봉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B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아) 후회 - 반응

<예 32: C 교과서, p. 57>

A: Is there anything you bought that you shouldn't have?

B: Yes. I shouldn't have bought a cap.

A: Why do you regret buying it?

B: I don't need it.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when spending money.

A: I see. I think it's important to plan before spending.

<예 32>은 두 번의 '후회-반응' 인접쌍을 보여주고 있다. 사지 말았어야 했던 물건을 산 적이 있었냐는 A의 질문에 B는 모자를 사지 않았어야 한다는 첫 번째 후회에 대한 발화를 하고, 이에 대해 A는 왜 후회를 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돈을 쓸 때에는 더 신중했었어야 한다는 B의 두 번째 후회에 A는 "I see." 로 반응을 하고 있다.

(자) 변명 - 수용

<예 33: A 교과서, p. 128>

A: I'm calling to let you know that I won't be able to attend our reading club this Wednesday. Sorry.

B: That's okay.

<예 33>는 전화로 A가 자신에 수요일에 클럽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변명을 하고, B가 괜찮다며 그 변명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차) 걱정 - 위로

<예 34: B 교과서, p. 211>

B: I lost my dog. I'm worried.

A: Oh, that's too bad.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B: Yes. Can you help me find my dog?

A: Of course.

<예 34>는 B가 개를 잃어버려서 걱정을 하자, A가 유감을 나타내며 위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대화는 도움을 제의하는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 기대 - 반응

<예 35: D 교과서, p. 171>

A: The winter vacation is almost here.

B: I know. I'm looking forward to it!

A: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B: Yeah, I'm planning to work out at a fitness center.

<예 35>는 A가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B는 겨울방학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B의 기대에 대한 반응으로 A는 B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타) 위로 - 수용

<예 36: A 교과서, p. 30>

A: What's up, Suyeon?

B: I don't know what to do. My dad took away my cell phone.

A: I know how you feel, since my mom did the same thing to me before. But I think you should try to understand him.

B: Why should I?

A: Because he's only thinking of your best interests. He loves you.

B: Yeah, I guess you're right. Thanks for your advice.

<예 36>에서 B는 자신의 아버지가 핸드폰을 압수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며, A는 이러한 B를 자신의 어머니도 자신에게 똑 같은 행동을 하신 적이 있어서 B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며 위로를 건네며, 더불어 충고도 같이 하고 있다. A의 위로에 B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화에서 '위로-수용'의 인접쌍 사이에 다른 종류의 인접쌍이 삽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인접쌍이 연속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파) 약속 - 반응

<예 37: B 교과서, p. 83>

A: Is anything wrong, sir?

B: Yes. The food came out late.

A: I'm so sorry. I'll make sure it won't happen again.

<예 37>은 음식점에서 손님인 B가 음식이 늦게 나온다면 불평을 하고, 종업원인 A가 사과를 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대화가 종결되고 있다. 따라서, 약속에 대한 반응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 추측 - 반응

<예 38: D 교과서, p. 182>

A: What is your favorite memory from this year?

B: It's hard to say. I have so many great memories.

A: But if you had to pick one...

B: Then it would have to be Sports Day. I won a prize on that day.

A: Really? What was it for?

B: Badminton.

A: You must have been happy.

B: Oh, I was! I had never won a prize in any sports before!

<예 38>은 '추측-반응'을 보여주는 대화문으로, 올해의 가장 좋았던 기억을 묻는 A의 질문에 B는 배드민턴으로 상을 받았었던 이

유로 Sports Day를 꼽는다. 이에 대해 A가 굉장히 행복했었을 거 같다는 추측의 발화를 하고, B는 그랬었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4) 제의 - 수용/거절

인접쌍	빈도	선호구조/비선호구조	빈도	분포도(%)
제의 - 수용/거절	62	선호구조	48	77.42
		비선호구조	9	14.52
		영인접쌍	5	8.06
		총합계	62	100

대화문의 인접쌍의 분포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제의-수용/거절'의 세부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선호구조에 해당하는 '제의-수용'은 77.4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선호구조인 '제의-거절'은 14.5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의에 대한 인접쌍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8.06% 나타나고 있다.

(가) 선호구조 (제의-수용)

<예 39: A 교과서, p. 12>

A: Are you okay, Mina? You look sad.

B: It's nothing serious. I am just sad because I didn't win a prize in the English speech contest.

A: Well, I heard you did very well. Cheer up! You'll have other

chances in the future.

B: Thanks. I feel much better now.

A: Good. Now, how about going out to get something to eat?

B: Okay, sounds good.

<예 40: C 교과서, p. 175>

A: Let's have a day out next week.

B: Great idea. How about hiking?

A: Sounds good. What will the weather be like next week?

B: Hmm. Monday is not a good day for hiking. It's going to be rainy.

A: Then, let's on Tuesday or Saturday. It's going to be sunny.

B: Great. Tuesday will be fine.

<예 39>에서 A는 B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위로를 해주다가, 화제 전환을 위해 뭐 먹으러 가자고 제의를 하고 이에 대해 B는 수락을 하고 있다. <예 40>은 한 대화문에 3개의 '요청-수락' 인접쌍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이다. A가 다음주에 야외활동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B가 이를 수락하는 것이 첫 번째 인접쌍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B가 등산을 제의하고 A가 이를 수락하는 것이 두 번째 인접쌍이며, A가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요일이나 토요일에 등산을 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대한 B의 수락이 세 번째 인접쌍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비선호구조 (제의-거절)

<예 41: E 교과서, p. 153>

A: I've got free ticket for a movie.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B: What movie is it?

A: It's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It starts at six this evening. Let's go see it together.

B: I'd love to, but I'm going to a soccer match. I'm sorry.

<예 41>은 A가 B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제의를 하지만, 이에 대해 B 축구경기에 가야 한다며 거절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대화에서 '제의-거절' 인접쌍 사이에 영화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화와 'Let's go see it together.'라는 또 한 번의 제의가 사용되고 있으며, B의 대답인 'I'd love to, but I'm going to a soccer match.'는 앞의 두 번의 제의에 대한 거절로 나타나고 있다.

(다) 영인접쌍

<예 42: C 교과서, p. 217>

A: What should we do to save energy?

B: For one thing, we should use public transportation.

A: What else should we do?

B: We should turn off lights when they're not in use.

A: Right. Let's do our part to help the environment.

<예 42>에서 A와 B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A가 환경을 돕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하자는 제의를 하며 대화가 종결되고 있으며, 따라서 제의에 대한 인접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5) 주장 - 동의/반대

인접쌍	빈도	선호구조/비선호구조	빈도	분포도(%)
주장 - 동의/반대	53	선호구조	33	62.26
		비선호구조	7	13.21
		영인접쌍	13	24.53
		총합계	53	100

'주장-동의/반대' 인접쌍의 세부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선호구조에 해당하는 '주장-동의'는 62.26%, 비선호구조인 '주장-반대'은 13.21%, 주장에 대한 인접쌍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24.53%로 나타나고 있다.

(가) 선호구조 (주장-동의)

<예 43: A 교과서, p. 128>
A: What do you think of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Korea?
B: I think many of them must be having a hard time.
A: Why do you think so?

B: Because they come from different cultures and speak different languages. It's not easy for foreigners to adapt to Korean society. Does this make sense?

A: Yes, you're right.

<예 43>은 두 번의 주장이 사용되고 있는 예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A가 B의 의견을 묻자, B는 그들 중 다수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첫 번째 의견을 주장한다. 그 주장에 대한 이유를 A가 질문하자, B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외국인들이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자신의 두 번째 주장을 나타낸다. 이 대화문에서 주목할 점은 두 번의 주장에 대해 한번의 동의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문의 종결행의 “Yes, you're right.” 는 앞서 나온 두 번의 주장 모두에 대한 동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 비선호구조 (주장-반대)

<예 44: C 교과서, p. 55>

A: I like this sweater. How much do you want for it?

B: It's 20 dollars. It's the best price you'll find.

A: But that's too expensive. Can I get a discount?

B: Hmm... how about 18 dollars? That's my final offer.

A: OK. It's a deal.

<예 44>는 상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로, 종업원인 B가

스웨터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가장 좋은 가격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B는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하며 그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 영인접쌍

<예 45: E 교과서, p. 173>
 A: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invention of all time?
 B: I think it's the ballpoint pen. I can't imagine how people lived without it. We owe a great deal to Ladislo Biro.
 A: To whom? Can you say that again?
 B: Ladislo Biro. He invented the ballpoint pen in 1938.

<예 45>에서 B는 사람들이 볼펜없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할 수 없다며, 볼펜이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접쌍은 나타나지 않은 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6) 인사 - 인사

인접쌍	빈도	세부 분류	빈도	분포도(%)
인사 - 인사	14	인사 - 인사	7	50.0
		영인접쌍	7	50.0
		총합계	14	100

'인사-인사' 인접쌍의 세부 사용 빈도는 '인사-인사'의 경우가 50%, 인사에 대한 인접쌍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50%로 동일한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 46: D 교과서, p. 12>

A: Hi, I'm Miso. Nice to meet you.

B: Nice to meet you, too. My name is Jina.

A: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B: Sure. It's 030-4321-5678.

<예 47: B 교과서, p. 211>

A: Hi, what's the matter?

B: I lost my dog. I'm worried.

A: Oh, that's too bad.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B: Yes. Can you help me find my dog?

A: Of course.

<예 46>에서 A와 B는 처음 만난 상태에서 서로 인사는 나누고 있다. A가 자신의 소개를 하며 만나서 반갑다고 하자, B 또한 반갑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 47>은 인사에 대한 인접쌍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A가 B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B는 인사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본인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충고 - 수용/거절

인접쌍	빈도	선호구조/비선호구조	빈도	분포도(%)
충고 - 수용/거절	7	선호구조	6	85.71
		비선호구조	1	14.29
		총합계	7	100

'충고-수용/거절' 인접쌍의 세부 사용 빈도는 선호구조에 해당하는 '충고-수용'의 경우가 85.71%, 비선호구조인 '충고-거절'은 14.29%로 나타나고 있으며, 두 구조의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고-수용/거절' 인접쌍에서는 영인접쌍의 경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가) 선호구조 (충고-수용)

<예 48: B 교과서, p. 65>

A: I'm going to go hiking this Saturday.

B: Make sure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A: I will. Thank you for the advice.

B: You're welcome.

<예 48>에서 A가 이번 토요일에 등산갈 계획이라고 하자 B는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라는 충고를 하고 A는 그렇게 하겠다며 충고를 받아들이고 있다.

(나) 비선호구조 (충고-거절)

<예 49: A 교과서, p. 30>

A: What's up, Suyeon?

B: I don't know what to do. My dad took away my cell phone.

A: I know how you feel, since my mom did the same thing to me before. But I think you should try to understand him.

B: Why should I?

A: Because he's only thinking of your best interests. He loves you.

B: Yeah, I guess you're right. Thanks for your advice.

<예 49>는 '충고-거절' 인접쌍을 보여주고 있는 예로,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빼앗겨서 기분이 상해있는 B를 A가 위로하면서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충고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B의 반응은 왜 그래야 하나며 충고에 대한 거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A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자 결국 마지막에는 B가 A의 충고를 수용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8) 비난 - 거부/인정

인접쌍	빈도	선호구조/비선호구조	빈도	분포도(%)
비난 - 거부/인정	6	선호구조	6	100
		비선호구조	0	0
		총합계	6	100

'비난-거부/인정' 인접쌍의 세부 분포를 살펴보면, 선호구조인 '비난-인정' 인접쌍이 100%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비선호구조인 '비난-거부'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비난-거부'에 대한 예제는 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제시할 것이다.

(가) 선호구조 (비난-인정)

<예 50: B 교과서, p. 83>

A: Is anything wrong, sir?

B: Yes. The food came out late.

A: I'm so sorry. I'll make sure it won't happen again.

<예 50>은 '비난-인정'을 나타내고 있는 예로서, B는 음식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비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종업원인 A는 비난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고 있다.

(나) 비선호구조 (비난-거부)

<예 51: One Tree Hill, Season 1 - Episode 2>

DAN: Nathan!

(Nathan comes over to Dan.)

DAN: Look at this. What did you do there?

NATHAN: I was double teamed, so I found the open man.

DAN: Wrong. You gave up a scoring opportunity in the post.

NATHAN: What? Dad, I was double teamed. I scored 28 points.

DAN: 30 points would've looked better to the scouts, don't you think? Go to sleep. You look winded in the fourth quarter. We'll go for a run together in the morning.

<예 52: One Tree Hill, Season 1 – Episode 2>

KAREN: So, you gonna tell me about the fight or you wanna just assume I know about it while I yell at you?

(Lucas glares at Haley.)

HALEY: Is that the phone? I'll get it.

(The phone's clearly not ringing but Haley gets up anyway.)

KAREN: Still here.

LUCAS: Mom, he had it coming. You know he said–

KAREN: No. When they called me today, I was certain they had the wrong Scott. And then they told me they had two Scotts and I could take my pick. Honestly, Lucas, fighting in class? Fighting at all?

LUCAS: They guy was being a jerk.

KAREN: And this is suddenly a surprise to you? He hasn't been a jerk before?

LUCAS: No. He's always a jerk.

KAREN: So why go down to his level? This wouldn't have anything to do with playing poorly, would it?

LUCAS: How would you know? You weren't even there.

<예 51>에서 전직 농구선수였던 Dan은 현재 고등학교 농구 선수인 아들 Nathan의 경기를 녹화한 것을 시청하면서 모니터를 해주던 중, Nathan이 경기 중에 했던 행동에 대해 득점 기회를 놓쳤으며 비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Nathan은 자신이 2명에 의해 수비 당하고 있었으며, 28점을 득점했었다며 그 비난에 대해 거부를 하고 있다. Nathan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Dan은 계속해서 Nathan을 비난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예 52>는 수업시간에 Lucas가 자신의 이복동생인 Nathan과 싸운 것을 Lucas의 어머니인 Karen이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Karen에게 Lucas의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 Karen은 전화가 잘못 걸려온 줄 알았지만, 자신의 아들인 Lucas가 싸운 것을 알게 되었고 Lucas가 이에 대해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 더 화가 난 상태이다. Karen이 비난을 하자, Lucas는 Nathan이 자신에게 나쁘게 행동했다며 비난에 거부를 하지만, Karen은 Nathan의 나쁜 행동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행동했던 그에게 대응을 했던 Lucas를 더욱 비난을 하며, Lucas도 계속 자신을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9) 칭찬 - 수용/거부

인접쌍	빈도	선호구조/비선호구조	빈도	분포도(%)
칭찬 - 수용/거부	5	선호구조	4	80.00
		비선호구조	0	0
		영인접쌍	1	20.00
		총합계	5	100

'칭찬-수용/거부' 인접쌍의 세부 빈도 분포는 선호구조에 해당하는 '칭찬-수용'이 80%, 그리고 칭찬에 대한 인접쌍이 없는 경우가 20%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선호구조에 해당하는 '칭찬-거부'에 대한 인접쌍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칭찬-거부'에 대한 예시는 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제시할 것이다.

(가) 선호구조 (칭찬-수용)

<예 53: A 교과서, p. 30>

A: Dinner was so delicious, Mom.

B: I'm glad you liked it.

A: Is there something I can help you with?

B: Yes. There are some dishes to wash up. Could you give me a hand?

A: Sure, Mom.

<예 53>에서 A는 저녁식사가 매우 맛있었다고 B를 칭찬하고 있고, B는 A가 좋아해서 기쁘다는 말로 칭찬을 수용하고 있다.

(나) 비선호구조 (칭찬-거부)

<예 54: One Tree Hill, Season 1 – Episode 3>

BRANDON: (hands Haley a paper) Check it out.

HALEY: B+! Brandon, all right! You did it!

BRANDON: Yeah, I just threw all my bad grades into the pot. I'm not going back there.

HALEY: I know you're not.

BRANDON: I've had I don't know how many tutors, and this girl's a miracle worker.

HALEY: No, this is all you, man. Congratulations!

BRANDON: Thanks, Haley. See you.

HALEY: Yes! I knew he could do it! Yes!

<예 54>는 '칭찬-거부'가 나타나는 예이다. 학교에서 tutor로 활동하고 있는 Haley는 자신의 학생이었던 Brandon이 B+의 성적을 받은 성적표를 보여주자 Brandon과 함께 매우 기뻐하고 있다. Brandon이 자신의 성적이 오른 것을 Haley의 덕으로 돌리며 칭찬을 하자, Haley는 이 칭찬을 거부하며 모든 것이 Brandon의 덕택이었다며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

(다) 영인접쌍

<예 55: D 교과서, p. 155>

A: There's a saying, "A zebra takes its stripes wherever it goes."

B: What does it mean?

A: It's a Masai proverb. Let me put it this way. A habit formed at the age of three continues until you're eighty.

B: Now I get it. That's very funny.

<예 55>는 A가 마사이족의 속담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B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 속담을 비슷한 한국속담으로 표현을 바꾸어주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의 설명을 마침내 이해한 B는 매우 재미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지만, 이 칭찬에 대한 인접쌍이 나타나지 않은 채 대화가 종결되고 있다.

(10) 끝맺음 - 끝맺음

인접쌍	빈도	세부 분류	빈도	분포도(%)
끝맺음 - 끝맺음	3	끝맺음 - 끝맺음	0	0
		영인접쌍	3	100
		총합계	3	100

'끝맺음-끝맺음' 인접쌍의 세부 분포는 끝맺음에 대한 인접쌍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만 나타나고 있음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끝맺음-끝맺음'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예시는 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제시할 것이다.

<예 56: One Tree Hill, Season 1 – Episode 3>

HALEY: Oh, listen – they're playing “Attack of the 50-foot Woman” at the Crescent tomorrow. Do you want to go?

LUCAS: Yeah. Count me in.

HALEY: All right.

LUCAS: I'll call you later.

HALEY: Bye!

<예 57: B 교과서, p. 31>

A: Good evening. May I take your order?

B: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at risotto is?

A: Sure. Risotto is an Italian rice dish. Would you like to try it?

B: Yes, I'll try it.

A: Good choice.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B: I'd like a coke, please.

A: Great. I'll be back.

<예 56>은 Haley가 Lucas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의를 하고 이에 대해 Lucas가 수락을 하며 작별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Lucas는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말로 대화를 끝맺고 있으며, 이에 대해 Haley는 작별인사를 하며 대화를 끝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57>에서 B는 음식 주문을 하고 있으며, 모든 주문이 끝

난 후에, 종업원인 A는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발화를 하며 대화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 때 A의 이러한 끝맺음에 B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11) 사과 - 수용/거부

인접쌍	빈도	선호구조/비선호구조	빈도	분포도(%)
사과 - 수용/거부	3	선호구조	1	33.33
		비선호구조	0	0
		영인접쌍	2	66.67
		총합계	3	100

'사과-수용/거부' 인접쌍은 선호구조인 '사과-수용'의 경우가 33.33%, 사과에 대한 인접쌍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66.67%로 세부 분포가 나타나고 있으며, 비선호구조인 '사과-거부'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과-거부'의 예시는 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제시할 것이다.

(가) 선호구조 (사과-수용)

<예 58: A 교과서, p. 128>

A: Can I speak to Minsu?

B: Jiseon? What's up?

A: I'm calling to let you know that I won't be able to attend our

reading club this Wednesday. Sorry.

B: That's okay. I hope you'll be able to make it next time.

<예 58>에서 A는 클럽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B에게 사과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B는 괜찮다는 표현을 하며 A의 사과를 수용하고 있다.

(나) 비선호구조 (사과-거부)

<예 59: One Tree Hill, Season 1 - Episode 2>

KAREN: Hi, honey.

LUCAS: I looked for you.

KAREN: Yeah, we were, uh, busy at the café which is a good thing, right?

LUCAS: Sure.

(Lucas starts to walk away.)

KAREN: Luke!

(Lucas turns around.)

KAREN: I'm sorry I missed it.

LUCAS: Yeah, me too.

<예 59>에서 Karen은 Lucas가 고등학교에서 농구선수가 된 이후로 처음 가진 경기에 불참석하였고, Lucas는 경기를 뛰는 동안 계속 관중석에 있을 Karen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Lucas는 서운함을 느껴 경기 후 Karen의 카페로 찾아왔고, 경기에 가지 못한 것을 Karen은 사과하고 있지만, Lucas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도 역시 유감이라며 화를 내며 카페를 나가버리고 있다.

(12) 자랑 - 인정/조롱

인접쌍	빈도	선호구조/비선호구조	빈도	분포도(%)
자랑 - 인정/조롱	3	선호구조	1	33.33
		비선호구조	0	0
		영인접쌍	2	66.67
		총합계	3	100

'자랑-인정/조롱' 인접쌍은 교과서 분석결과, 선호구조인 '자랑-인정'이 33.33%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랑만 나타나고 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영인접쌍이 66.6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선호구조에 해당하는 '자랑-조롱'은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해당하는 예제는 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제시할 것이다.

(가) 선호구조 (자랑-인정)

<예 60: A 교과서, p. 88>

A: Hey, I didn't know you collected foreign currencies. There

are so many!

B: Sure. It's my hobby. You know what? I have more than 2,000 coins and bills!

A: Really? That's cool! Which ones are your favorites?

B: I love the bill from the Netherlands the best. Look at how colorful it is!

<예 60>은 B가 자신의 2,000개가 넘는 외국 통화의 컬렉션에 대해 자랑을 하자, 이에 대해 A가 멋있다고 그 자랑을 받아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나) 비선호구조 (자랑-조롱)

<예 61: One Tree Hill, Season 1 - Episode 1>

COACH: You guys are stinking up the place! Time-out! Time-out! Get in here! Ravens! Come on, hustle, hustle, hustle! Just what in the hell is going on out there?

NATHAN: Whitey, relax. We're up by 9.

COACH: What have I told you about that? I don't care if we're up by 5 or 50. I'm still the coach. It's still my team.

NATHAN: Whatever you need to believe.

<예 61>에서 Tree Hill High School의 농구팀의 코치는 경기 도중, 선수들이 경기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자 작전 시간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 Nathan은 자기네 팀이 9점차로 이기고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코치는 5점차 이긴 50점차 이긴 상관없으며, 자신의 팀이며, 자신이 코치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며 Nathan의 의견을 비웃고 있다.

(다) 영인접쌍

<예 62: D 교과서, p. 104>

A: How did you spend your vacation?

B: I went to a teen center and learned hip-hop dancing.

A: You did? How was that?

B: It was great. I got pretty good at it!

<예 62>에서 A는 B에게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질문을 하고, B는 청소년센터에서 힙합 춤을 배웠다고 대답을 하고 있다. A가 힙합 춤 배우는 것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묻자, B는 자신이 힙합 춤을 꽤 잘 추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고, 이 자랑에 대한 인접쌍이 나타나지 않은 채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다.

(13) 호출 - 대답

<예 63: E 교과서, p. 64>

A: I want to go to the ball, too...

B: Cinderella! Cinderella!

A: Oh? Who are you?

B: I'm your fairy godmother, Cinderella. Dry those tears and go to the ball.

<예 63>은 '호출-대답'이 대화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고 싶다고 독백을 할 때 요정이 나타나서 신데렐라를 부르고 이에 신데렐라가 대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화문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인접쌍

분석 결과 5종의 교과서에는 3가지 종류의 인접쌍 - '위협-대응', '모욕-반응', '도전-대응' - 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국 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이에 해당하는 인접쌍들을 찾아 제시하려 한다.

(1) 위협 - 대응

<예 64: One Tree Hill, Season 1 - Episode 03>

(Nathan drives up the van and two guys force Lucas out of the car, pulling a bag off his head in the meantime. Lucas struggles to get free but they push him into the stream. Nathan walks up as Lucas stands up, very angry, and frees his hands.)

NATHAN: Well, well. The gang's all here. I told you it was gonna get worse. Now, see, normally this is when you become part of the team. We'd have a keg, tell some war stories but you had to know that wasn't going to happen, right? Look, these guys made a choice to back me. But we're going to be nice, and we're going to let you walk away. Just quit the team, man. Otherwise, it's going to get ugly. Let's get out of here.

LUCAS: I can't stand it anymore!

(The guys all go back into the van and drive off, leaving a very angry Lucas standing there.)

‘위협-대응’ 인접쌍은 분석대상이었던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인접쌍이었기 때문에, 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그 예를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예 64>는 Nathan이 이복형제인 Lucas가 같은 농구팀에 합류하게 되자 그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에 그가 팀에서 빠지기를 원하여, 결국 밤에 길을 지나가던 Lucas를 납치하여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Nathan은 Lucas가 팀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더 괴롭힐 것이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Lucas는 Nathan의 이전 행동들은 모두 참아왔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며, Nathan과 그의 무리들은 Lucas를 남겨두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 장면에서 Nathan의 위협과 이에 대한 Lucas의 대응을 관찰할 수 있다.

(2) 모욕 - 반응

<예 65: One Tree Hill, Season 3 - Episode 9>

DAN: Whatever you say, be sure not to stumble on the word concede.

KAREN: Thank you. A few minutes ago, my son asked me how important this election was to me and my answer to him is that it's very important. But what's more important? Believing in your fellow man; having faith in a person's character; trusting that a person is who we think they are and defending that trust until we're given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we should no longer do so. With that said, I wish to concede. But not the election. I wish to concede that when I decided to run for mayor, I underestimated my opponent and the depths to which he will go to hurt and to humiliate others. You have seen the commercials, you have seen the real Dan Scott. Now do the right thing and vote for Karen Roe.

DAN: My opponent's decided to write me off based on a recent video that I'm sure you've all seen. Well, I'd like to tell you that that video is a fabrication, a fake. I'd like to tell you that but I'm afraid that would be a lie. It's an accurate depiction of a man at his worst and I'm not proud of it. And so, today, I ask for understanding; for forgiveness. For a second chance.

<예 65>는 '모욕-반응'의 인접쌍을 보여주는 예이다. Tree Hill의 시장 선거에 출마한 Karen과 Dan이 투표가 끝나기 전 시행되는 마지막 연설을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연설이 시작되기 전 Dan은 자신을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Karen에게 선거에 대한 패배 선언을 마지막 연설에서 할 것을 종용한다. 그러나 Karen은 마지막 연설을 하러 올라가서 Dan이 원하는 연설이 아니라 Dan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다. 즉, 항상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는 Dan의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이라며 유권자들 앞에서 Dan에게 모욕을 주며, 자신에게 투표를 할 것을 권고하며 연설을 마친다. 이러한 Karen의 모욕에 Dan은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반응을 나타낸다. Karen의 선거 운동 광고로 쓰였던 비디오는 Dan이 자신의 아들인 Nathan을 욕하면서 때리는 동영상이었으며, Dan은 그 비디오가 자신이 가장 안좋았을 때의 모습이라고 변명을 하며 유권자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동정심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3) 도전 - 대응

<예 66: One Tree Hill, Season 1 - Episode 1>

NATHAN: Nice shot. Think you can hit that against a double team, down by 2, packed house telling you you suck? How about just two people telling you you suck?

LUCAS: What do you want?

NATHAN: What do I want? What do you want, man? I mean, other than my girlfriend and my spot in the lineup, huh? None of us want you on the team, man. I don't want you. The guys don't want you. My girlfriend sure as hell doesn't want you. -- but here's the deal. -- You and me, one on one. You can name the time and place. If you win, I'll quit the team. If I win, you crawl back in your little hole and you remember your place in all this. Time and place, baby. Time and place.

LUCAS: tomorrow night, at the riverfront. But if I win, I'm gonna want something else.

<예 66>는 '도전-대응'의 인접쌍을 보여주고 있으며, Nathan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Lucas에게 일대일로 농구 대결을 하자고 도전을 하고 있다. Nathan의 도전에 Lucas는 강가 농구코트에서 내일저녁에 시합을 하자며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다.

3) 선호구조/비선호구조

인접쌍 유형	선호구조	비선호구조	영인접쌍	합계
칭찬 - 수용/ 거부	4	0	1	5
사과 - 수용/ 거부	1	0	2	3
요청 - 수락/ 거부	79	0	4	83

거절				
비난 - 거부/ 인정	6	0	0	6
주장 - 동의/ 반대	33	7	13	53
자랑 - 인정/ 조롱	1	0	2	3
제의 - 수용/ 거절	48	9	5	62
충고 - 수용/ 거절	6	1	0	7
합계	178 (80.18%)	17 (7.66%)	27 (12.16%)	222 (100%)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5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접쌍 중 선호구조 또는 비선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선호구조와 비선호구조의 분포를 나타내어 보았다. 선호구조는 총 222개의 인접쌍 중 178번의 횟수로 80.18%의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비선호구조는 17번에 그쳐 단지 7.66%의 분포만을 나타내어 선호구조와 비선호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비율보다는 비선호구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선호구조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대화문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호구조 또는 비선호구조를 결정해주는 인접쌍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경우도 27회, 즉 12.16%가 나타나고 있다.

4) 교과서 별 분포도

	인접쌍	A	B	C	D	E	합계
1	질문 - 대답	27 (26.47)	26 (32.91)	21 (25.93)	21 (23.33)	12 (19.35)	107
2	호출 - 대답	0 (0)	0 (0)	0 (0)	0 (0)	1 (1.61)	1
3	인사 - 인사	4 (3.92)	4 (5.06)	2 (2.47)	3 (3.33)	1 (1.61)	14
4	칭찬 - 수용/ 거부	3 (2.94)	0 (0)	0 (0)	2 (2.22)	0 (0)	5
5	끝맺음 - 끝맺음	0 (0)	1 (1.27)	1 (1.23)	1 (1.11)	0 (0)	3
6	사과 - 수용/ 거부	1 (0.98)	0 (0)	1 (1.23)	1 (1.11)	0 (0)	3
7	요청 - 수락/ 거절	10 (9.80)	17 (21.52)	13 (16.05)	23 (25.56)	20 (32.26)	83
8	위협 - 대응	0 (0)	0 (0)	0 (0)	0 (0)	0 (0)	0

9	모욕 - 반응	0 (0)	0 (0)	0 (0)	0 (0)	0 (0)	0
10	도전 - 대응	0 (0)	0 (0)	0 (0)	0 (0)	0 (0)	0
11	비난 - 거부/ 인정	0 (0)	2 (2.53)	2 (2.47)	2 (2.22)	0 (0)	6
12	주장 - 동의/ 반대	19 (18.63)	8 (10.13)	13 (16.05)	7 (7.78)	6 (9.68)	53
13	차량 - 인정/ 조롱	2 (1.96)	0 (0)	0 (0)	1 (1.11)	0 (0)	3
14	제의 - 수용/ 거절	13 (12.75)	8 (10.13)	14 (17.29)	14 (15.56)	13 (20.97)	62
15	충고 - 수용/ 거절	3 (2.94)	2 (2.53)	2 (2.47)	0 (0)	0 (0)	7
16	기타	20 (19.61)	11 (13.92)	12 (14.81)	15 (16.67)	9 (14.52)	67
	합계	102	79	81	90	62	414

각 교과서 별 인접쌍의 분포를 살펴보면, A 교과서의 경우

'질문-대답' (26.47%), '기타' (19.61%), '주장-동의/반대' (18.63%), '제의-수용/거절' (12.75%), '요청-수락/거절' (9.8%), '인사-인사' (3.92%), '칭찬-수용/거부' (2.94%), '충고-수용/거절' (2.94%), '자랑-인정/조롱' (1.96%), '사과-수용/거부' (0.9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 교과서는 총 16개의 인접쌍 중 10개의 인접쌍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상위 2개의 인접쌍에 집중되어 있었다.

B 교과서는 '질문-대답' (32.91%), '요청-수락/거절' (21.52%), '기타' (13.92%), '주장-동의/반대' (10.13%), '제의-수용/거절' (10.13%), '인사-인사' (5.06%), '비난-거부/인정' (2.53%), '충고-수용/거절' (2.53%), '끝맺음-끝맺음' (1.27%)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총 9개의 인접쌍이 나타나고 있으며, B교과서 또한 과반수 이상이 상위 2개의 인접쌍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C 교과서는 10개의 인접쌍이 '질문-대답' (25.93%), '제의-수용/거절' (17.29%), '요청-수락/거절' (16.05%), '주장-동의/반대' (16.05%), '기타' (14.81%), '인사-인사' (2.47%), '비난-거부/인정' (2.47%), '충고-수용/거절' (2.47%), '끝맺음-끝맺음' (1.23%), '사과-수용/거부' (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D 교과서는 '요청-수락/거절' (25.56%), '질문-대답' (23.33%), '기타' (16.67%), '제의-수용/거절' (15.56%), '주장-동의/반대' (7.78%), '인사-인사' (3.33%), '칭찬-수용/거부' (2.22%), '비난-거부/인정' (2.22%), '끝맺음-끝맺음' (1.11%), '사과-수용/거부' (1.11%), '자랑-인정/거부' (1.11%) 순으로 총 11개의 인접쌍이 나타나고 있으며,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인접쌍도 다른 교과서는 '질문-대답'인 것과는 달리 '요청-수락/거절'로 나타나고 있다.

E 교과서의 인접쌍 분포를 살펴보면 7가지의 인접쌍이 나타

나고 있으며, '요청-수락/거절' (32.26%), '제의-수용/거절' (20.97%), '질문-대답' (19.35%), '기타' (14.52%), '주장-동의/반대' (9.68%), '호출-대답' (1.61%), '인사-인사' (1.6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교과서는 앞의 네 교과서에 비해 조금 덜 다양한 인접쌍이 제시하고 있으며, 상위 2개의 인접쌍이 또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접쌍간의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5종의 교과서는 총 16개의 인접쌍 중 교과서 별로 7 - 11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으며, 나타나고 있는 인접쌍 간의 분포도가 고르기 보다는 '질문-대답', '기타', '제의-수용/거절', '요청-수락/거절' 등 몇 가지에 편중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IV. 결 론

우리나라의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영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영어에의 노출 또한 주로 교실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교과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07년 개정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한마디로 의사소통능력 신장이라고 함축될 수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대화문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07년 개정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을 선정하여 교과서 내의 대화문을 대화분석적 관점 중 특히 인접쌍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과서가 인접쌍을 얼마나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과서에 나타난 인접쌍을 선호구조와 비선호구조를 분류하고 그 빈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과서 별로 다양한 인접쌍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교과서 별 인접쌍의 분포를 비교하였고, 교과서에서 세부 빈도에서 나타나지 않았거나(예: 요청-거절, 비난-거부, 칭찬-거부, 끝맺음-끝맺음, 사과-거부, 자랑-거부, 호출-대답), 아예 나타나지 않았던 인접쌍(예: 위협-대응, 모욕-반응, 도전-대응)은 미국드라마 'One Tree Hill'에서 보충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내의 인접쌍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16개의 인접쌍 중 '위협-대응', '모욕-반응', '도전-대응'을 제외한 13개의 인접쌍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중 '질문-대답', '요청-수락/거절', '기

타', '제의-수용/거절'의 인접쌍이 약 77%의 인접쌍이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인접쌍이 말하기 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대답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것처럼 인접쌍 내의 두 발화는 상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인접쌍의 두 발화의 상호 관련성은 두 번째 발화가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발화 순서의 교체를 암시해주며, 첫 번째 발화에 대한 적절한 응대를 할 수 있는 연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말하기 교육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대화문을 제작할 때 학습자들이 보다 다양한 인접쌍을 비슷한 빈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 내에 나타난 인접쌍을 선호구조와 비선호구조로 분류한 결과 선호구조는 약 80%, 비선호구조는 약 8%로 매우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의 대화에서는 비선호구조가 8%의 비율보다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대화문을 통한 비선호구조에 대한 연습 및 학습이 현재보다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어느 구조인지 분류할 수 없었던 영인접쌍(발화에 대한 인접쌍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의 경우도 약 12%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교과서가 영인접쌍을 제시해주기 보다는 각 발화에 알맞은 인접쌍을 되도록 더 많이 제시해줌으로써 학습자가 발화에 대한 적절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학습할 기회를 현재보다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5종의 교과서 별로 인접쌍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A 교과서의 인접쌍은 '질문-대답', '기타', '주장-동의/반대', '제의-수용/거절'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B 교과서는 '질문-대답', '요청-수락/거절', '기타', '주장-동의/반대', '제의-

수용/거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C 교과서는 '질문-대답', '제의-수용/거절', '요청-수락/거절', '주장-동의/반대',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D 교과서는 '요청-수락/거절', '질문-대답', '기타', '제의-수용/거절'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E 교과서는 '요청-수락/거절', '제의-수용/거절', '질문-대답',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각 교과서 별로 분포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각 교과서 별로 분류를 하여 비교를 하여도 교과서의 대화문의 인접쌍이 주로 '질문-대답', '제의-수용/거절', '기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서 세부 분포에서 나타나지 않았거나 아예 제시되지 않았던 인접쌍은 미국 드라마에서 그 예를 찾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의 교과서가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등장인물이 고등학생인 드라마 'One Tree Hill'을 선택하였다.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각각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되도록 교과서 내의 대화문이 실생활에서의 그것과 비슷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진정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교과서가 다루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은 재구성을 하여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거나 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활용하여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학습자들이 접할 기회를 제공 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오량, 신상근, 이후고, 조자룡, 신인화, 오주혜, Gray, E. R. 2009. *High School English*. 서울: (주) 금성출판사.
- 김덕기, 안병규, 오준일, 신인숙, 김향신, 나복희, Dahland, A. 2009. *High School English*. 서울: 천재교육.
- 김성곤, 윤정미, 송미정, 박용예, 강은경, 문도식, 윤미정, 정석환, Haas, J. L. 2009. *High School English*. 서울: (주) 두산.
- 이찬승, 황수연, 연세정, 구은영, 김진홍, 이종은. 2009. *High School English*. 서울: 능률교육.
- 이창수, 황규홍, 민수정, 임채춘, 강신자, 장정근, Wilson, P. 2009. *High School English*. 서울: 해피하우스.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요.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외국어과 교육과정 (I).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강병섭. 2000. 의사소통 기능에 의한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연습문제의 대화부분 분석. 석사 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공주.
- 권오국. 2001. 중학교 영어교과서 대화예문 분석. 석사 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서울.
- 김수경. 2004.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 비교·분석 - 제 6·7차 교육과정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김용용. 2003. 중1 영어교과서 대화문 분석 - 사회언어학적 변인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김재춘, 부재율, 소경희, 채선희. 2000. *예비·현직교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파주: 교육과학사.
- 김해연. 2000. 대화분석과 영어교육. 황적륜(편). *현대영어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432-469).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명희. 2008. *고등학교 영어 회화 교과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의 대화문 분석 - 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 박용예. 2005. 대화분석과 영어교육. 양혜순 · 이성범 · 이창봉(편). *영어학의 최근 논점: 의미론, 응용언어학* (pp. 321-364). 서울: 한국문화사.
- 배두본. 1999. *영어 교재론 개관*. 서울: 한국문화사.
- 신수진. 2008.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의 의사소통 기능과 대화상황 분석*. 석사 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안혜련. 2005.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대화문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엄철주. 2006.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의사소통책략의 분석. *응용언어학*, 22(1), 277-301.
- 유경희. 2006. *제7차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전시형 질문과 참고형 질문 분석*.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이아름. 2007. *중1 영어 교과서 대화문 분석*. 석사 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이양숙. 2007.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 분석 - 사회언어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Koo, H. & Jeon, Y. 2003. A Study on Adjacency Pairs in Korean Conversation: Based on a Spoken Corpus of College

- Students.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 285–296.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Laughlin, M. L. 1984. *Conversation: How Talk Is Organized*. Beverly Hills, CA: Sage.
- Schegloff, E. A. 2007. *Sequence Organization in Inter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edhouse, P. 2004. *The Interactional Architecture of the Language Classroom: A Conversation Analysis Perspective*. Maiden, MA: Blackwell Publishing.

ABSTRACT

An Analysis of Dialogues in High School Textbooks – Focusing on Adjacency Pairs

Kang, Jiwo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dialogues in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which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 revised 7th national English curriculum of 2007. It will especially focus on adjacency pairs in order to examine the diversity of adjacency pairs present, compare the frequency of the organization of preference and the organization of dispreference, examine and compare adjacency pairs each textbook possesses. The paper will also give some examples of adjacency pairs that the textbooks did not possess using excerpts from the American TV show, 'One Tree Hill.'

For this purpose, five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used in the first grade were randomly selected. Each dialogue is analyzed in terms of the categories of thirteen adjacency pairs of McLaughlin (1984) and in addition, 'suggest-

accept/reject' and 'advice-accept/reject' of Levinson (1983) and 'the rest.'

The significan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thirteen types of adjacency pairs in the dialogues of the textbooks, except the 'threat-response', 'insult-response', 'challenge-response' and about 77% of the adjacency pairs were 'question-answer', 'request-grant/deny', 'the rest', and 'suggest-accept/reject.'

Second, there was a very unbalanced ratio of the organization - in the result of classifying the adjacency pairs on the basis of the second pair parts, about 80% of the organization was of preference and about 8% of the organization was of dispreference. Also 12% of the first pair parts could not be classified into these two organizations.

Third, though each textbook showed slight difference in distribution, adjacency pairs of each textbook relied much on 'question-answer', 'suggest-accept/reject', and 'the rest.'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djacency pairs in dialogues in textbooks be varied in order to give learners more opportunities to practice more diverse conversations and dialogues should include more organizations of dispreference. Also teachers should reorganize textbooks if they feel there are not enough adjacency pairs in the text and make a full use of TV shows or movies as this study shows so that learners can experience with more authentic conversations.

